

“간화선 대중화 실참·학문 교류에 해답있어”

조계종 불학연구소 제8차 간화선 세미나

축서사서 ‘선사와 학자 대담’... ‘허심탄회’한 대화

2004년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담 선대법회에서 한 수행자와 선학자의 대담은 실참과 선학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후 불교학계에는 붓물 터지듯 수행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지만 학자의 외침만이 있었을 뿐 선사의 대담성은 볼 수 없었다. 서산 대사는 <선가구감>에서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 했다. 교계 일각에서는 말하지 않는 선사와 마음을 모르는 학자의 무심함과 무지함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조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선사와 학자의 대담이 최초로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24~25일 봉화 축서사주지 무에서 제8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행과 학문의 소통’을 주제로 열린 ‘선사와 학자의 대담’은 조계종 원로위원 고우 스님을 비롯해 해국 스님(전국선원 수좌회 대표), 지환 스님(기본선원

장), 의정 스님(용문선원장), 철산 스님(대승사 주지) 등 10여 명의 선원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고영섭 교수(동국대), 신규탁 교수(연세대), 임승택 교수(경북대), 김호귀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 선학 및 불교학 전공 학자 10여 명이 자리했다.

1박2일간 3차례 진행된 대담은 학술적 담론이 아닌 수행과 깨달음 등 수행자와 학자 양측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고우 스님은 기조강연에서 “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나아가 국제 문제 등에도 불교계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구성해 각자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불교중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우 스님은

“출·재가간 역할 분담으로 세간의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이 원활히 소통해 자기 능력에 맞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행 않는 학자들에 대한 경계도 있었다. 해국 스님은 “학자들이 쓴 간화선에 대한 글을 보면 화두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님은 “수행자와 학자가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학자들의) 화두에 대한 정경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정견을 갖춘 학자들의 글은 대중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대담에 앞서 진행된 입제식에서 현종 스님은 “직접간명하고 살아있는 간화선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 개인적으로는 이교득락하고, 사회적으로는 맑고 밝은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선사와 학자의 대담을 마련했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무어 스님은 환영사에서 “한국문



조계종 불학연구소가 봉화 축서사에서 10월 24~25일 개최한 ‘선사와 학자의 대담’에는 해국 스님, 고우 스님, 무어 스님 등이 참석했다(왼쪽부터).

화상품으로 세계에 선보일 상품 중 으뜸가는 것이 간화선이지만 불자들조차 가치를 몰라 아쉽다”며, “이런 대화를 정제화해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와 간화선을 통한 인류 공헌 방안을 탐구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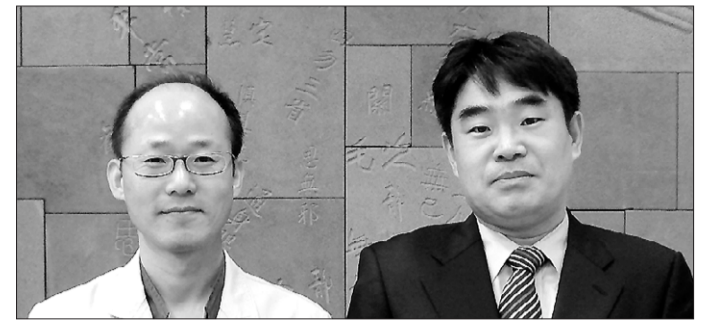
대담에서는 말과 글에 관한 선적 의미를 시작으로 재가자 수행 지침, 남자의 제집 방법과 수행 점검, 화두 수행과 깨달음, 간화선과 여타 수행 법과의 관계 등을 다뤘다. 간화선이 안고 있는 문제, 간화선과 사회참여, 간화선 활성화 방안 등 간화선 대중

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적인 명상 붐에도 불구하고 간화선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가 실참과 학문 간의 교류 단절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3차례 대담을 통해 간화선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불교학자 등 지식인들의 역할은 물론 수좌회 산하에 수행법과 간화선 대중화 방안 탐구 등을 전담할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ews.com

정천구·공만식 박사 선정

제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5회 불교소장학자 번역지원사업에 선정된 정천구 박사(왼쪽)와 공만식 박사.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 이하 불교학지원회)가 제5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수혜자로 정천구·공만식 박사를 선정했다. 불교학지원회는 10월 27일 강남포교원에서 제5회 불교소장학자 번역지원사업 지원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인재들은 불교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불교계가 시대변화에 적응하도록 사회와 불교를 잇는 연결고리”라며, “2004년 시작돼 5회째를 맞은 불교학연구기금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집행하고 법인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천구 박사(부산대 강사)는 “한국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비교는 화두와 같았다. <겐코오사쿠소(元亨釋書)> 번역으로 동아시아 연구의 초석을 다지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만식 박사(동국대 강사)는 “원전에 근거한 불교학 기초가 부실한 한국불교를 극복하고자 빨리 문헌을 열심히 꼼꼼히 번역해 양질의 출판물을 불교학지원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한·중·일 불교 근대화 과정과 역할 집중 조명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근대불교연구서 2종 발간

김육균과 박영호 등이 일본을 왕래하며 근대화의 기틀을 다진 이면에 이종인과 무불 등 개화회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역불정적으로 위축됐던 불교였지만 19세기 이르러 내재적 원동력을 회복하며 개화사상가에 이념적 틀을 제공했다는 학설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해원, 이하 연구원)은 최근 근대 불교학 연구서적 2종을 출간했다. 동아시아 불교연구총서 시리즈로 출간한 <동아시아 불교, 근대화의 만남>과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은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사업 성과를 60여 편 가운데 일부 논문을 수록한 책이다.

연구원은 ‘동북아 삼국의 근대화와 불교문화의 변용연구’를 주제로 2005년부터 매년 2억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지술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부교수, 류승주·이기운 조교수, 한상길·윤기엽·조승미·원영상·김제란 연구교수 등을 주축으로 서인범·김상길·이봉춘 교수(동국대), 서재영 선임연구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차상엽 연구원(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사토 아츠시 강사(일본 동양대) 등이 참여했다.

<동아시아 불교, 근대화의 만남>은 한국, 중국, 일본불교의 근대화 과정을 ▲제1부 한국 근대불교의 개막과 자주화의 모색 ▲제2부 동·서문

화의 충돌과 중국 근대불교 ▲제3부 근국주의와 일본 근대불교로 나눠 서술했다.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은 ▲제1부 민족주의의 발전과 근대 불교학 ▲제2부 제국주의와 불교연구 ▲제3부 근대화와 불교교육으로 나눠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다.

해원 스님은 “‘동아시아 불교, 근대화의 만남’은 ‘프로젝트 1, 2년차 연구성과로 한·중·일 근대불교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분석에 앞서 선행연구로 진행됐다.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은 근대에 성립한 불교학 자체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반성적 사유를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발간한 근대 불교학 연구서적들.

간을 계기로 동아시아 근대불교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의 연구교수 9인과 한국·중국·일본 특별 공동연구원 2 인력이 참여하는 중점연구사업은 2014년까지 예정됐다. 현재 ‘아시아 불교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2단계 사업(2008~2011년)을 신청하고 금명간 있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조동섭·이은 기자

한글대장경 세미나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는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의 제문제’를 주제로 11월 6일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제10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지장구 교수(동국대)-교관론과 대장경 관련 문제 ▲윤기엽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신수대장경의 체제와 구성 ▲오윤희 소장(고려대장경연구소)-디지털 대장경의 관점에서 본 고려대장경의 지위와 특성 ▲정승석 교수(동국대)-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 ▲박종민 위원(동국대 경원)-한글대장경 목록에 대한 제안이 발표된다. 토론자로 보광·해주·계환 스님과 박경준·황순일 교수 등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들이 참가한다. (02)2260-3504 조동섭 기자

위대한 치료자를 찾아서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11월 8일 학술대회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는 11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위대한 치료자들’을 주제로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륜 스님(정토회 이사장)이 기조법문 ‘위대한 치료자’를, 이부영 명예교수(서울대·한국중앙대

장)와 조성교 교수(카톨릭대)가 각각 ‘정신치료로서의 용’과 ‘마스터 테라피스트에 대한 심리학적 조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회원 무료, 비회원 3만 원(학생 2만원, 성직자 1만원). 010-9582-9119 조동섭 기자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천태불교학술대회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11월 15일 오전 11시 천태종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2008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려말선조 천태종승의 동향’, 김영미 교수(이화여대)가 ‘신라 승려들의 여성관’, 오지현 연구원(원각불교사

상연구원)이 ‘법화영현전’의 신앙 유형 고찰’, 이종수(동국대 박사수료)씨가 ‘조선 후기 삼문수업의 성립 연구’, 신병삼(동국대 박사수료)씨가 ‘근대불교의 깨달음’, 박서연(동국대 강사)씨가 ‘<화엄경> 여래광명각품의 주석학적 이해’를 발표한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1월 4일 화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기간 : 6주(24시간)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송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 락 합장 -

평생회원 정기 수련회

- 주제 : 자기 최면 집중훈련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6시 ~ 11월 26일 12시
- 장소 : 정읍 칠보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연구실로 연락바랍니다.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도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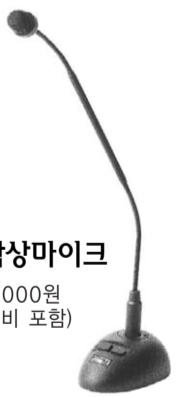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 (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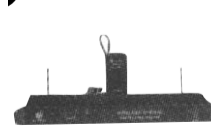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